

어명소 제2차관 ‘버스·터미널업계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’

- 2일 버스·여객터미널 업계 간담회 열고 지원방안 논의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일(목) 오전 10시 전국버스연합회, 6개 道시외버스조합, 고속버스조합, 전국터미널사업자협회 등과 함께 버스 및 여객터미널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 -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“코로나-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인해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객터미널의 폐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”고 하면서, “버스와 여객터미널이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완화”를 요청하였다.
 - 어 차관은 “지속적인 승객 수 감소*와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버스과 여객터미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”고 언급하면서, “버스와 여객터미널이 핵심 대중교통수단 및 사회기반시설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·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다각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* (고속·시외버스) '19년 1.90억명 → '22년 1.03억명 ('19년 대비 '22년 54% 수준)
(서울 시내버스) '19년 14.59억명 → '22년 12.54억명 ('19년 대비 '22년 86% 수준)
- 또한, “시외·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되어 있음”을 강조하면서, “이용객과 종사자의 코로나-19 감염방지와 버스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3. 2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